

# 환경체계설정을 통한 농촌환경계획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이 경 진

일본 지바(千葉)대학 도시/지역계획연구소

## The Directions of Rural Environmental Planning Based on Establishing Environment Contexts.

Lee, Kyung-Jin

Lab. of Urban & Regional Planning, Chiba Univ.

### ABSTRACT

This study was accomplished to present a new paradigm of rural environmental planning for the purpose of changing a rural planner's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composed of a follows.

- To search the structures and orders in rural environment on the point of four environmental contexts.
- First, environment contexts with spaces, society, and time.
- Second, environment contexts with spaces unit in human settlement.
- Third, environment contexts with correlation of physical environm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 Fourth, environment contexts with ecotope(physiotope + biotope) and landscape ecology.
- To analyze and criticize a present political situation of rural planning in Korea.
- To apply a paradigm of environmental planning for rural planning.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환경을 다루는 일련의 전문가(조경, 건축, 도시계획, 토목, 환경공학)들에 의한 농촌연구의 범주는 크게 2가지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농촌민가의 연구로부터 시작된 생활구조연구의 시점으로서 현재에 존재하는 생활과 공간과의 관계 및 상태를 중시하며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범주이다. 이것은 근대화 과정의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을 어떻게 공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생활개선운동에서 시작하여 주민참가형 계획론의 시점으로서, 주체를 중

시하고 주체의 활동을 환경의 창조와 개선의 원동력으로 하는 범주이다. 이것은 환경을 계획, 이용, 관리하는 주체가 선명하여야 하고 환경의 창조와 개선은 주체의 형성과 자각, 경험, 창의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접근 방식이다. 이 두가지를 종합해 보면 농촌이라는 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 포괄적인 환경과 사회의 틀 속에서 그 공간의 장소적 성격을 규명하면서 계획하는 것에 더하여 주체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장소와 주체'라는 패러다임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농촌이라는 장소와 농민이라는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커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의 농촌환경계획을 돌이켜 보면 농촌이라는 '장소'를 도시와 대비된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농촌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와 계획보다는 도시에 비하여 환경이 열악한 농촌을 도시의 수준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나타나 도시도 농촌도 아닌 환경을 조성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도시라는 곳이 현대사회의 주된 환경임에는 틀림없지만 완벽한 환경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하여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농촌환경계획은 정책의 제물처럼 되어 왔다. 따라서 농민이라는 주체보다는 행정(관)주체의 정책수단으로 시행되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농촌환경계획은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새로운 농촌계획 패러다임을 제시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농촌이라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질서를 환경체계(Environment Context)설정을 통하여 규명해 보고 둘째, 환경체계설정을 통하여 기존의 농촌환경계획의 문제점을 계획 패러다임 관점에서 분석해 보며 셋째,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농촌환경계획이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전제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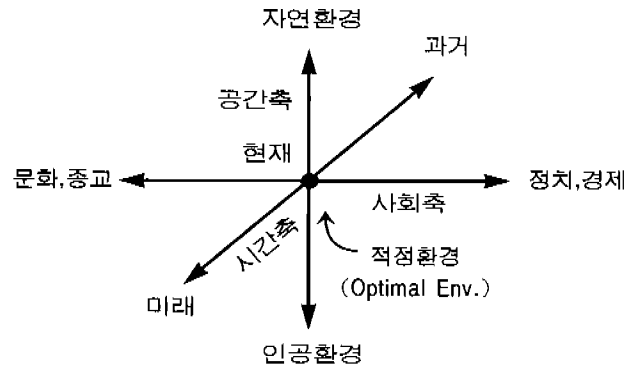
환경계획에서의 환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간단하게 다루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라는 것은 개별적이 아니고 종합적이며 서로 영커있는 상호관계의 전체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로만 해석·분석하는 것은 변하고 있는 환경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것이 아무리 분석개념이 아니라 종합적, 관련성의 개념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 및 요소로서 잘라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자른 상태로 구조 및 요소들의 개별 특성과 그들의 상호관계, 이것을 종합한 전체 시스템의 파악 등의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즉 환경의 체계 또는 맥락(Environment Context)으로서의 파악이 필요 불가결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체계는 한가지 시점 또는 전문성만으로 설정하게 되면 환경에 대한 해석이 그 부분에 집중되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결정이 계획에 영향하게 되면 그 계획은 편협한 계획으로 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환경계획의 방향정립을 위하여 몇 가지의 환경체계를 설정하여 농촌환경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3. 농촌계획모델과 패러다임**

본 연구에서는 환경을 환경체계로 파악하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공간축), 비물리적 환경(사회축), 시간(시간축)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물리적 환경은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물리적 환경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 등으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서 구분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환경이라는 것은 공간축, 사회축, 시간축의 환경체계를 가지게 된다.<sup>1)</sup>



〈도 1〉 공간, 사회, 시간으로서의 환경체계

이러한 환경체계 속에서 환경계획이라는 것은 최적의 환경(Optimal Environment)의 구축을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공간적, 사회적, 시간적으로 상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 규제와 평형의 상태로의 환경창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된 환경,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문화와 종교가 풍만하여 안정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 환경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환경체계와 환경계획의 관점에서 농촌환경계획을 살펴보면 환경의 균형과 조화라는 대전제에 대단히 역행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물리적 환경(공간축)측면에서는 자연환경보다는 인공환경을 추구하는 보존모델이 아닌 도시모델, 개발모델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

며, 비물리적 환경(사회측)측면에서는 문화와 종교의 계승 및 발전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모토(Motto)를 앞세운 '정책 청사진모델'의 추구가 대단히 강했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시점은 무조건 부정하고 현재의 문체시된 농촌은 과거에서 부터 온 것이라는 식의 과거와 현재를 단정적으로 무시하고 미래로만 가려하려는 식의 인식에 기저한 농촌환경계획이 되어 왔다. 따라서 환경의 균제와 평형이라는 환경계획 방향과는 매우 거리가 멀게 진행되었다. 농촌환경계획의 문제의 시발을 요약해 보면 물리적 환경(공간측)측면에서의 '농촌공간 계획모델' 부재, 비물리적 환경(사회측)측면에서의 '농촌 주체적 계획모델'의 부재, 이러한 계획모델들을 찾기 위해서 어느 시점부터 분석하고 연구해야 하는가의 '시간모델의 부재'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계획으로 전환하여야 하는가가 관점이 된다.

이러한 관점은 크게 농촌공간론의 관점과 농촌계획방법론의 2가지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농촌공간론이란 도대체 농촌이란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으며, 무엇인가? 하는 관점이고, 농촌계획방법론은 이러한 농촌공간에 어떠한 인식의 합일점을 줄 것인가 하는 패러다임의 관점으로 귀결된다.

패러다임이란 한 사회가 지닌 공통적 가치이고 믿음인 동시에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농촌환경에서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할 때(인식모델), 또는 농촌 환경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계획모델),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기대고 싶은 모델 또는 가치관으로서 그 시대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것을 농촌환경계획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계획분야에서 패러다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모델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대상을 관찰하면서 조사하는 것에 따라 그 대상의 [정의]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틀]을 발견하게 된다. 이 [틀]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소위 [법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상, 관찰, 정의(개념), 법칙이라는 수순에 따라서 [인식]이 발전한다. 이러한 정의 또는 법칙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의 또는 법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모델이 유효성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촌환경계획에서 이 인식과 계획, 모델이라는 것이 특히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농촌환경의 기초단위로서

마을은 자연과 인공, 생활과 생산, 역사·문화의 연속성, 공동성 등의 매우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에 비하여 명쾌히 설명되지 못하는 환경의 모호성, 모순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방법론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개념을 인식하여 그것에 자극을 부여하기가(계획) 곤란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환경계획이라는 것은 농촌이라는 환경을 인식하는 모델과 계획하는 모델의 2가지 측면을 하나로 결부시키는 일련의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즉, 농촌환경에 잠재하는 법칙성의 획득과 그 법칙성에 새로운 자극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농촌환경계획은 농촌환경의 발전법칙, 현재 있는 농촌환경의 모순을 설명하려는 시도 등의 농촌환경 인식모델보다는 농촌환경에 자극을 부여하는 계획모델의 성격이 다분히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 계획이라는 것이 농촌환경의 인식모델의 기저에서 시작되지 못하였고 도시환경 인식모델의 기저에서 이루어져 왔기에 현재 농촌환경계획은 그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모델과 계획모델의 결부 작업으로서 농촌환경계획은 인식모델에서 관찰자의 주관성을 어떻게 배제하느냐 하는 문제와 계획모델에 있어서 계획가의 주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통적 가치의 추구가 무엇인가 하는 패러다임이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시간과 함께 변화 진화하며, 학문분야와 패러다임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고 가치, 태도, 믿음의 변화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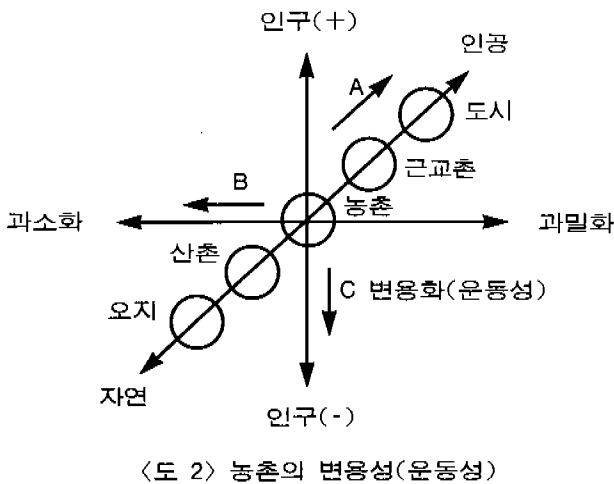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의하여 어떤 대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행동하게 된다.<sup>3)</sup> 그러면 이 시대의 농촌환경계획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변화되고 진화한 패러다임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 따라 농촌환경계획의 방향도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 몇 가지 농촌환경체계를 설정하고 그것에서 설명되어지는 농촌환경계획의 패러다임을 찾아보기로 한다.

#### 4. 공간단위로서의 농촌환경체계

무엇 때문에 농촌환경계획에서 공간적 범주로서의 환경단위가 요구되는가? 그것은 환경계획이라는 특질이 [공간]

을 매개체로 하여 생활과 사회상을 집어내고, 공간의 계획을 통하여 생활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이라는 것이 시간에 의한 축척물로서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의 공간을 과거의 시간대 속에서부터 해석하여 이것이 가지는 현재의 문제를 미래에 대응하여 해결해 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농촌마을을 정주환경체계상으로 국토 전체에서 보면 <도2>와 같다. 농촌을 설명하는 데에는 인구 및 인구밀도, 경제형태 및 규모, 거리, 교육수준, 생활상, 자연성 정도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도2>는 국토공간 전체에서 인구의 증감, 도시화(과밀화)와 과소화, 인공성과 자연성의 3가지 개념으로 중심에 놓고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농촌계획은 과소화와 과밀화의 균형, 인구의 균형, 자연성과 인공성의 균형에 그 목표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촌은 과소화, 인구감소, 인공성으로의 변용화(운동성)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국토의 균형화 및 정주환경체계에 커다란 과제를 주고 있다.



수준) 등이 도시와 비슷하게 축진된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정주환경체계상 농촌은 도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은 농촌이라는 공간적 범주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농촌은 농촌자체의 공간적 유지를 통해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이 <도2>의 BC 변용화(운동성)에 의하여 계속 과소화되고 낙후되어 간다고 가정할 때 공간적으로 산촌으로 변용되는 것 역시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농업이라는 산업구조와 입지적인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이라는 것이 아무리 변용화(운동성)에 의하여 변하더라도 그 공간적 범주만은 항상 남아 있게 된다. 여기서 농촌환경계획가는 농촌의 공간적 범주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공간적 범주로는 변하지 않는 농촌공간을 좀 더 세분화 해 보면 택지(농가), 택지경계부, 마을주거구, 농업생산공간, 마을전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각 공간을 설명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구성요소로 파악해 보면 <표1>과 같다.<sup>4)</sup>

<표1> 농촌공간의 물리적 구성요소

구 분	물리적 환경구성요소
택 지	주택(건물), 정원, 창고
택지주변	문, 담, 생울타리, 전주, 가공선
마을주거구	광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마을회관, 도로, 수로, 하천, 간판
농업생산공간	전, 담, 목초지, 과수원, 농도, 용·배수로, 농업시설(축사, 창고, 비닐하우스)등
마을전체	마을주거지나 농업생산공간이 혼재하는 전원경관, 하천, 도로, 산악, 사적, 종교시설, 보건위생시설, 행정시설, 상업·업무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유념할 것은 이 변용화(운동성)의 결과이다. 과거 탈농업시대에는 산업화에 의해서 농촌이 도시로 변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산업정보사회에 들어와 특수한 예들(신도시 개발, 공단개발)제외 하고는 농촌이 <도2>의 A라는 변용화(운동성)에 의하여 근교촌 또는 도시로 발전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농촌의 발달에 따른 확산이 도시근교촌이 된 것이 아니라 도시의 확산에 의하여 도시근교촌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경제수준, 의식수준, 문화수준, 생활수준, 교육

여기서 농촌환경계획의 공간적 범주로서의 환경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농촌계획에서의 공간적 범주로서의 환경단위는 농촌생활권 개념, 농촌정주환경 개념(통근권, 통학권, 구매권, 의료권) 등에 의하여 나누어 졌으며, 이러한 결과 농촌환경의 기초단위인 마을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의 목표 및 방향이 설정되지 못한 단순한 시각적, 경관적 처리, 취락구조개선 등의 방법에 의한 획일적, 표준화 방법으로 계획되어 졌고, 농지구획정리사업 단위로만 구분되는 등 아직도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농촌생활환경계획에 주안하지 않고 대규모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져 큰 도로만 계획하고 실제로 농촌생활에서 요구되는 생활도로(생산도로, 통학도로, 마을내부도로) 등은 계획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경계획적 특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농촌의 공간적 범주로서의 환경단위로 마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요구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촌환경계획의 공간적 범주는 마을(취락)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마을(취락)이란 어원적으로 '군집과 축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이 군집하여 생활환경을 영위하는 특정장소로서의 생활무대를 의미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의 거주 의 근거로서 존재하는 가옥들의 집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건조물로서의 가옥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표에 있어서 인간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는 것이다. 원래 토지에 정착을 의미하는 말이고 인간사회 생활의 기반이 되는 곳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취락은 인간이 오랜 세월을 걸쳐 지리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창조되고,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지표에 누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취락은 토지의 성격, 생활양식 역사적 배경, 주민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따라 장소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취락은 지역성격이 잘 표현된 상징적 지표가 되는 동시에 인간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인문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취락은 크게 농촌취락(촌락, Rural Settlement)과 도시취락(주거지, Urban Settlement)으로 나누어 진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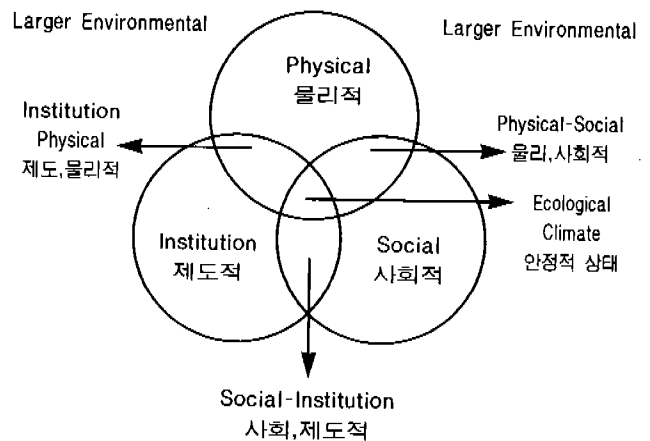
즉, 자연적 기반이 강하게 뿌리내린 인공적 환경으로서 생활과 생산의 일정 영역을 포함하며 역사적인 유지성과 사회집단의 연속성 및 공동성을 가진 환경단위인 마을공간을 농촌환경계획의 공간적 범주로서 환경단위화 해야 한다. <표1>에서 언급한 택지, 택지주변, 마을주거구, 농업생산공간, 마을전체를 주 환경단위로 보며, 때때로 지리적 특성과 공간적 특수성 등에 따라 규모가 큰 환경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지역 전체를 몇 개의 군(群)으로 합쳐서 환경단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환경단위에 환경계획이라는 방법을 취할시 계획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5. 상호관계로서의 농촌환경체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이라는 것이 복잡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쾌히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각각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농촌환경계획을 지역개발차원에서의 환경체계로 설명하려 한다. 농촌환경계획은 지역개발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되고 있다. 휴간에는 지역개발계획은 농촌환경계획이라고 동질화하여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지역개발계획이 요청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산업화에 따라 첫째, 농공간의 구조격차가 현저하게 되고 지역간 격차의 시정문제가 부각되고 둘째, 도시화의 흐름 속에 인구와 경제의 공간적 분포에 있어서 과소 과밀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며 셋째, 농촌경제공황의 만성화에 따른 시장기구의 유효성에 문제가 생겨 공간의 개편에 있어서 공공적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넷째, 국가형성 또는 국가발전이 요청되기에 지역개발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볼 때 농촌환경계획에 공공(국가, 지자체)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계획상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제도권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3>와 같은 환경체계를 설정하였다.

<도3> 상호관계로서의 환경체계



<도3>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물리적(Physical)구조, 사회적(Social)구조, 제도적(Institutional)구조의 3가지로 보아 이들의 상호관계가 환경을 구성하는 체계

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3가지 기본구조는 상호관계를 통하여 물리사회적(Physical-Social)구조, 제도물리적(Institutional-Physical)구조, 사회제도적(Social-Institutional)구조를 형성하고 이러한 각 구조의 상호영향이 환경에 대하여 가치(Values), 태도(Attitude), 견해(Option)를 축적하여 안정적 상태(Ecological climate)의 환경이 형성된다고 보는 환경체계이다. 따라서 환경이라는 것은 7가지의 환경적 구조단위(Environmental Units)가 결합된 복합체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sup>6)</sup>

이러한 환경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나라의 농촌환경은 안정된 상태의 유지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농촌환경은 상반되는 개념인 도시에 비하여 물리적 구조로서 열악하며, 사회적 구조 역시 마찬가지이며, 제도적 장치 역시 도시에 비하여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시도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더욱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도적 환경구조의 비효율성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농촌환경계획이라는 특수성은 제도권의 개입(공공 : 국가, 지자체)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의 농촌환경계획은 이러한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접근해 볼 수 있

다. 하나는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이 제도의 시행(구현)상의 문제로 요약된다.

<표2>는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관련제도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사한 성격의 정책, 사업, 계획이 총체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이며 따라서 혼란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비능률적 계획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7)</sup>

이러한 제도자체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 제도의 시행(구현)상의 문제로는 우리 나라 지역 개발 방식이 하향식 개발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역개발의 접근방법은 크게 하향식 개발과 상향식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하향식 개발 패러다임은 전 산업분야 혹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투자하는 것보다 선도적 산업, 혹은 소수 중심지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 보는 것으로 대표적 이론은 성장거점이론을 들 수 있다. 상향식 개발의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리적 권역을 개발 단위로 하여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계층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수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개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기본요구(Basic needs)와 관련되어 있으며 각 지역은 그 지역 내의 자연, 인간, 시설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로 영세계층이나 문제

<표2> 우리나라 농어촌 관련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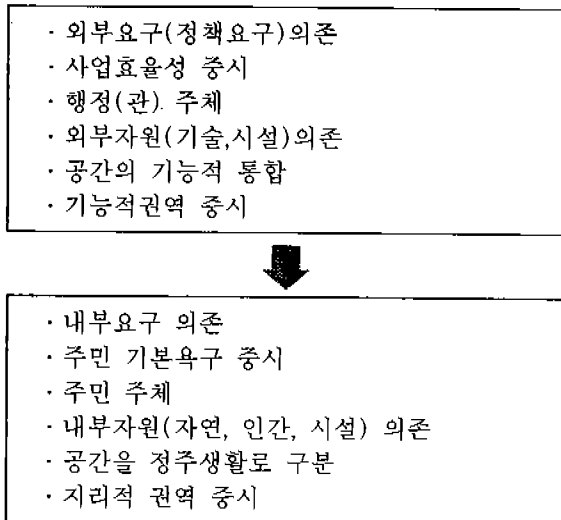
구분	해당부서	해당 지역	관련 제도(법)	
군단위의 개발계획	통합시기본계획	건설교통부	통합시(농촌포함)	도시계획법
	군건설종합계획	건설교통부	군지역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군지역	농림수산부 지침
	농어촌발전계획	농림수산부	시·군지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면단위 개발계획	정주권개발계획	농림수산부	면전역	농림수산부 지침
	오지개발계획	내무부	소재지를 제외한 면지역	내무부 지침
	도시개발계획	내무부	개별도서	내무부 지침
농촌취락 개발계획	취락지구개발계획	건설교통부	면소재지	국도이용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문화마을조성사업	농림수산부	명시 없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마을재개발 및 분산마을 정비사업	농림수산부	명시 없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소도읍개발사업	내무부	읍·면소재지	행정지침
	취락구조개선사업	내무부	명시 없음	행정지침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주민들에 의해 계획되고 수행된다. 또한 개발은 농촌개발사업, 노동집약사업, 적정기술사업, 지역주의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통하여 이룩되도록 하는 개발방식이다.<sup>8)</sup>

우리 나라 농촌환경계획은 하향식 개발방식 패러다임의 영향에 의해 농촌 내부요구에 따르기보다는 외부요구 즉, 정책적 요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기본욕구 충족보다는 사업의 효율성 충족의 추구에, 주민주체 보다는 행정(관)주체 형태로, 내부자원(자연, 인간, 시설)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자원(기술, 자본, 시설)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간을 정주생활로 구분하려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통합하려 하며, 지리적 권역을 중시하기보다는 기능적 권역을 중시하는 등의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농촌환경계획의 기본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다. 공간적인 접근은 환경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보려는 시도로서 이것은 인간이 만들고 활동하는 어떤 장소에서의 환경과의 상호관계의 규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접근은 일찍이 지리학에서 태동되었고 몇 가지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론, 분포론, 경관론, 지역론 등의 이론으로서 공간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의 발전을 종합해 보면 환경을 실증주의 차원에서 인문주의 차원으로 파악하기 시작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행동지각으로서의 환경, 역사문화로서의 환경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환경의 표층구조에 대하여 심층구조에 까지 그 접근 범위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며 '경관'이라는 용어로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경관이란 본래 지역성, 지역구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개성적인 공간적 복합체', '지역 통일체' 라고 표현되기 때문이다.<sup>9)</sup>

<도4> 농촌환경계획의 기본방향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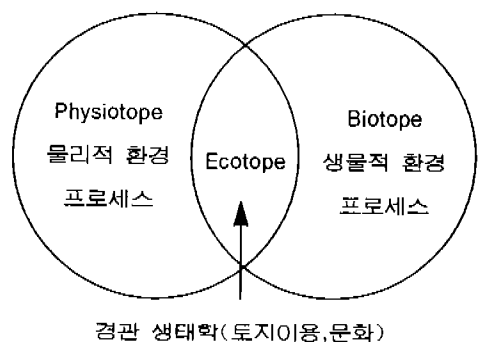
농촌에 있어서의 경관의 문제를 다룰 때 현재의 지역구조와 농촌의 특질파악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농촌의 원래 풍경이라는 '고향풍경'은 전통사회에서 형성될 수 있는 생태계에 의존한 공간이다. 즉 농촌경관이란 자연에 기초를 가지고 인간활동이 마을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패턴으로 나타난 것이며, 동일한 생업수단을 오랜동안 유지하면서 형성된 것으로서 공동체적 규제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는 고도성장이후 농촌경제의 비농업화, 사회의 혼재가치관의 다양성등에 의해서 급속히 변용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농촌경관의 측면에서의 농촌환경체계는 <도5>와 같이 경관생태학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경관생태학에서의 Ecotope이란 경관의 최소단위라는 등질지역으로서의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 지형, 토양, 지질, 물, 동

<도5> Ecotope으로서의 환경체계

6. 경관생태학, Ecotope으로서의 농촌환경체계

지금까지는 농촌환경을 물리적, 비물리적 또는 공간, 시간, 사회, 제도 등으로 나누어 환경체계를 개념정립방법으로 파악하여 보았으나 본 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과의 상호관계의 측면인 공간적인 논제로 파악해 보려 한



식물 등의 상호작용과 그것에 대한 인간의 작용국면이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 다시말해 자연기반 위에 토지이용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단위라 할 수 있다.<sup>10)</sup> 농촌경관이라는 것은 자연에 기초한 생물적 환경프로세스(Biotope)에 인간의 생활을 위한 물리적환경프로세스(Physiotope)의 작용이 가해진 결과물로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경관의 원형적 해석, 평가, 계획을 위한 접근은 생물적 환경프로세스(Biotope)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sup>11)</sup> Biotope란 생태학 분야에서는 서식지(Habitat)와 비슷한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Biotope는 '높은 균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 최소공간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것은 생물공동체의 서식장소로서 또는 생물공동체의 장소로서의 질서가 있는 복합체로서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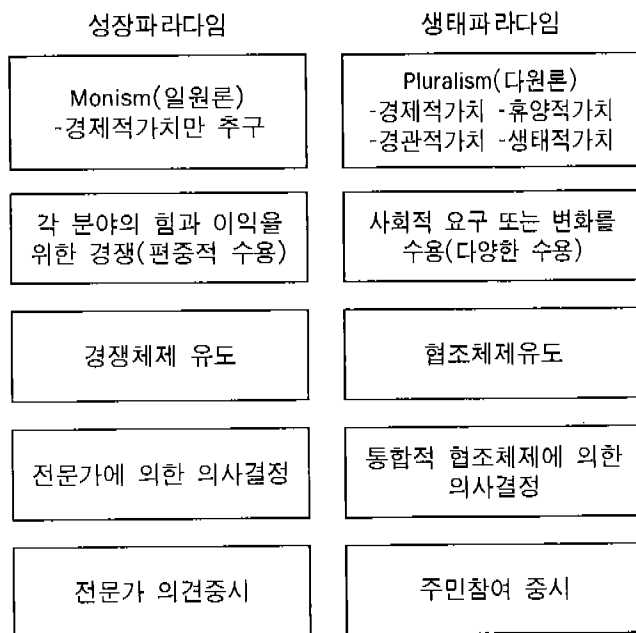
농촌환경계획에 있어서 Biotope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농촌의 토지이용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생물 다양성 보존기능을 중요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때까지의 농촌계획은 농업생산확대, 농작업의 합리화 등의 생산성 향상에 제1목적만을 둔 농업계획이었으며 논, 밭, 소하천, 산림, 잡목림 등이 가지고 있는 경관적, 생태적인 기능을 고려한 농촌환경계획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 현재의 농촌에서의 야생동식물은 감소되었고, 획일적인 농촌경관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향후의 농촌계획은 취약생태계에 대한 배려속에서 식량증산과 농업의 합리화가 아닌 자연을 보호, 보전하고 육성하는 농촌환경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Ecotope으로서의 농촌환경체계에서의 농촌환경계획의 패러다임은 생태패러다임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생태패러다임이란 성장패러다임과 상반된 의미로서 그 특성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재정립에서 찾을 수 있다.<sup>13)</sup> 즉 자연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인간은 자연과는 분리되어 있는 예외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자연지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옳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환경계획에서는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여야 하며, 그 사고의 기본적인 틀은 인간중심적 사고(Anthropocentrism)가 아닌 자연중심적사고(Ecocentrism)에서 시작되어야 한다.<sup>14)</sup> 또한 농촌환경의 허용범위(Acceptability)

가 강조되어야 하며 자연자원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친 편향된 가치추구가 아닌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농촌환경계획이 되어야 한다.

〈도6〉 생태패러다임의 가치추구과정



즉 자연자원을 경제적, 생산적가치로만 추구하는 일원적 논리(Monism)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가치, 휴양적 가치, 경관적 가치, 생태적 가치등의 다양한 논리(Pluralism)로서 그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환경계획에서의 생태적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이 패러다임이 대중의 참여(Participation)를 요구한다는 데에 있다. 〈도6〉에 보는 바와 같이 자연자원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생태패러다임은 사회적요구 또는 변화 등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며 이것은 상호경쟁적 수용이 아니라 협조체제하에서 수용하게 된다. 결국 통합적 협조체제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주민참여에 의한 계획으로 연계되는 상호연속작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생태학적 기반하에서 접근한 경관생태학적 농촌환경계획은 농촌경관의 구조와 요소의 서술, 농촌경관의 계통적 서열화, 농촌경관의 분포양식과 요인분석, 농촌경관의 역사적 변화과학, 농촌토지의 과학적속성 및 토지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농촌공간의 생태학적 완성을 실



현하며, 생태학적 제원리를 경관으로 검증하여 적정하며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 7. 결 론

농촌환경계획의 새로운 조류는 농촌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 포괄적인 환경과 사회의 틀 속에서 그 공간의 장소적 성격을 규명하면서 계획하는 것에 더하여 주체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장소와 주체'라는 패러다임으로 귀결되며, 따라서 농촌이라는 장소와 농민이라는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촌환경계획에서 인식과 계획, 모델이라는 것이 특히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농촌환경의 기초단위로서 마을은 자연과 인공, 생활과 생산, 역사·문화의 연속성, 공동성 등의 매우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에 비하여 명쾌히 설명되지 못하는 환경의 모호성, 모순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방법론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개념을 인식하여 그

것에 자극을 부여하기가(계획) 곤란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환경계획이라는 것은 농촌이라는 환경을 인식하는 모델과 계획하는 모델의 2가지 측면을 하나로 결부시키는 일련의 작업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환경계획은 마을공간의 내재적 발전원리에 의거한 계획의 목표검토가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목표는 크게 농촌환경구조에 적합하며, 그 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고, 변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계획목표는 변동하는 환경요소를 흡수하는 계획론이 되어야만 한다. 즉 유연성이 뒤따르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환경계획은 계획적 접근방법으로 공간구조모델에 따른 토지이용질서에 관심을 두며 이에 따르는 계획인식과 계획의지의 구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형성 접근 방법으로는 농촌경관모델에 따른 형태적, 경관적 특성에 관심을 두며 구체적 계획의 방향성이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농촌공간구조모델과 농촌경관모델의 2가지 접근방법은 서로 병행하여 진행되어야만 한다.

## 參 考 文 獻

1. 田村 明(1993), 環境計劃論, 鹿島出版會, pp.20-23.
2. 日本建築學會(1989), 集落, 都市文化社, pp65-87.
3. Rodman, John(1980), Paradigm change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4(1), pp. 49-67.
4. 中越信和(1995), 景觀のグランドデザイン, 共立出版株式會社, pp132.
5. 吳洪哲(1989), 聚落地域學, 教學研究社, pp.10-17.  
\*본 연구에서는 취락을 마을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
6. Robert K. Conyue(1981),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Design, Praeger, pp.21-25.
7. 農漁村振興公社(1995), 地方化 時代 農漁村 綜合戰略, pp187-192.
8. 農村開發研究會(1990), 農村開發論, 第8章.
9. 菊地利夫(1985), 新訂 歷史地理學方法論, 大明堂, pp.34-47.
10. 橫山秀司(1995), 景觀生態學, 古分書院, pp.13-14.
11. 中越信和(1995), 景觀のグランドデザイン, 共立出版株式會社, pp2-8.
12. 自然環境復元研究會(1993), ビオトープ, 信山社, pp14-15.
13. Catton, William R.(1980), A new ecological paradigm for post-exuberant sociolog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4(1), pp 15-30.
14.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5(3), Toward the new resource management paradigm?, Forest Service, pp.31-45.
15. 農村統計協會(1993), 農村土地利用計劃論,
16. 富民協會(1994), 農村の環境保全, 西村博行 外 1名
17. 農村計劃學會誌(1982)Vol 1. No2., 漁村集落の空間構成,
18. 農村計劃學會誌(1986)Vol 4. No 4., 集落空間の構成原理と地形立地,